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4호 [루게 제23136호] 주제99 (2010)년 7월 3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중국 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  
고있는 중국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중국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중국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연구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  
년에 즈음하여 그이께 열렬한 축하  
를 드린다. 그이께서 건강하고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스웨덴에 주체사상연구소 책임  
자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화주  
의운동이 목적과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  
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어 제  
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타격을  
주고 진보적인류에게는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주공화국과 나이제  
리아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  
전적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진  
행되었다.  
로작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의 기  
치높이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  
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소, 나  
이제리아 김정일주의연구소, 국  
제기차학교의 인사들과 군중이  
토론회들에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인류의 영원한 지도사상

새 세기에 18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때로부터 80년이 되었다.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에서 그 과학성과 진리성, 정당성이 확증된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세계를 이어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개혁의 앞길을 밝혀 주는 등대, 인류자주위업의 백승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근 10년간 세계적인 대외에서 광범히 전개된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사업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연구조직 결성  
2001년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가이아나의 조지타운에서 첫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된 이래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조직들이 날을 따라 늘어났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자주개발을 위한 프랑크푸르트주체사상연구소, 선군사상연구소를 위한 백두산학회, 이탈리아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 우크라이나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들의 전국조직위원회, 주체사상연구 메히코전국조직위원회, 동유럽 및 중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등 수많은 연구조직들이 50여개 나라와 지역에 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해당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의 지명된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참가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의 앞길을 밝혀주는 사랑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따라배우고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은 인류의 지향이며 요구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연구보급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18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연구보급활동 900여회  
메히코로동당,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탈리아위원회, 파키스탄 빅토리아출판사, 베네수엘라 칸파라출판사, 체코 프라하출판사 등 250여개의 정당, 단체, 기관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대백과사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위대한 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소개하는 도서, 소책자, 팸플릿을 발행하였다.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에 관한 기념연담토론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한 베네수엘라전국토론회, 자력갱생, 민족경제 및 자주위업에 관한 아시아지역토론회, 《주체사상과 아프리카의 변혁》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우니타드 나시오날》,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인터네트홈페이지, 미국선군정치연구소 인터네트홈페이지 등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 만세!》, 《조선의 선군사상 연구보급사업의 미래》를 펴내며, 《주체와 선군으로 빛나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들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빛나는 사상리론적저작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에 영감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불멸의 생활력을 대외에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김책체철원합기업소 로동계급은 1. 4분기 철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2. 4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찬 공격전을 벌리었다. 당위원회는 지도도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김철을 나라의 맡아달라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더 높은 철강재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화원선정사업에 힘있게 벌리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와 설비보수정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동력부문을

#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 유훈의 뜻 꽃피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활발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펴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인민들이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를 뜻함 없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인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진행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시인

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 해설사업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인민들속에서》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인격적모습을 보여 주는 도서들에 대한 학습과 연구발표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어린 혁명사적지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사상교양의 거점들을 통한 위대성정신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아랫당 조직들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실천적성공으로 더욱 빛내어나가게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

##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생산성과 확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각지 현대화된 축산기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고기와 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총합적 자로에 의하면 사리원, 강계대지공장과 사리원, 홍주, 신의주, 구성탑공장에서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상반년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평양가금지도육아배 공장들과 평포오리공장에서 상반년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한 기세로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돼지공장들과 닭공장, 오리공장같은 것을 잘 꾸리고 고기와 알을 많이 생산하여 로동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안의 현대적인 축산기지가 축산물생산의 앞장에 서서 힘찬 물결을 벌리었다.

의 불길높이 축산물생산은 전적으로 내밀었다.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대용머리, 단백머리생산기지를 꾸리고 먹이보장대책을 따르세움으로써 적은 먹이로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본사기자 정영철  
장아찌공장건설 적극 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맛있는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공급하여 식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할수 있다.》 그들의 생활을 문명하게 할수 있다. 《장군님께서 군안의 인민들의 식생활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장아찌공장을 훌륭히 건설하고있다. 읍지구에 건설되는 장아찌공장은 무우, 고추, 파, 마늘을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들과 참나무, 들, 무 등 지명품 생산을 위한 장아찌를 만들어 군안의 인민들에게 보내줄수 있는 식료가공기

## 김철소식 상반년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수행

김책체철원합기업소에서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김책체철원합기업소 로동계급은 1. 4분기 철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2. 4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찬 공격전을 벌리었다. 당위원회는 지도도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김철을 나라의 맡아달라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더 높은 철강재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화원선정사업에 힘있게 벌리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와 설비보수정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동력부문을



위대한 장군님을 일러내 모시었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신 총력 격을

본사기자

# 세기를 이어 승리만을 떨치는 불패의 혁명적당

##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결성 80돛에 즈음하여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더욱 풍요로워져 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 주체적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위한 투쟁을 시대를 걸으며 세차게 타나지고 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 주체적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위한 투쟁을 시대를 걸으며 세차게 타나지고 있다.

다함없는 그로움으로 가슴 불타는 7월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당조직의 새 시원을 열어놓고 있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도의 정에 넘쳐있다.

자주와 동지애라는 토양에 건설된 동지사라는 씨앗을 물은 때로부터 장강 수심성상 단 한번의 로선상차오도 없이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조선로동당!

당창건 65돛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조선로동당대회차회를 앞둔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은 혁명적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더욱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카렐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명칭을 <건설동지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건설>은 생산운동을 같이할 동지들을 찾아내고 <동지>는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수령님의 원대한 포부와 혁명적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은 조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은 혁명적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서만 빛나게 실현해나갈 수 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10대에 벌써 당은 혁명적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배가 좌우된다. 철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시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롭고도 독창적인 주체형의 혁명적

당조직의 길을 개척하신 우리 수령님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곡절 많은 길을 걸고있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옹호하며 진행해나갈 수 있는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의 결성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시대적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던 끝에 선행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급하게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는 아니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착실하게 다지고 그 토대 위에서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참모부적역할을 수행하는 당을 창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시었다.

당시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초석을 쌓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전에서 조직하신 《E. C.》은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었다.

《E. C.》의 강령에 기초하고 《E. C.》가 키워내기 시작한 핵심집단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는 과정에 반계청년동맹이 태어나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공청이 창립되고 그것이 강력한 전위조직으로서 활발히 움직이는 날에 세 세대 열혈청년투사들은 선행세대가 범한 오류들을 극복하고 대중전위와 명도예에서 새 경로를 개척하였다. 반계청년동맹, 공청이 이루어 준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은 곧 당창건의 기초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렐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통하여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을 천명하신 것은 당창건의 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사면적의의가 지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회의에서 세 세대 열혈청년투사들을 골간으로 기출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렐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주제19 (1930)년 7월 3일 민명학교의 교실에서 우리 당의 태어라고 씨앗! 바로

주체형의 첫 당조직결성을 위한 회의 를 소집하시고 《당조직결성세》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당의 기출당조직을 내오고 확대해나가는 모태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어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직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결코 두루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인격을 천품으로 지니신 결세의 위인, 일찌기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불멸의 넓고도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력사적업이었다.

사대와 교조가 강물처럼 범파하고 있던 그때 이제 겨우 투쟁의 첫 걸음마를 10여명의 세 세대 열혈청년들로 혁명적당조직을 내었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적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의 정지적기적이었다며 10대의 젊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정지적령도력, 위대한 인격의 일대 파시였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혁명의 투쟁은 이때부터 항일대전의 지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첫 당조직이 결성된 얼마후에는 온성일대의 혁명적핵심집단으로 국내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젊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안의 동맹일대, 북부조선일대에 수많은 기출당조직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었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어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되도록 되었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체제는 더욱 정연하게 확립되게 되었다.

간고한 항일투쟁의 나날에 이룩된 이런 고귀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방투쟁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결성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당의 기출당조직을 내오고 확대해나가는 모태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어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직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결코 두루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인격을 천품으로 지니신 결세의 위인, 일찌기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불멸의 넓고도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력사적업이었다.

사대와 교조가 강물처럼 범파하고 있던 그때 이제 겨우 투쟁의 첫 걸음마를 10여명의 세 세대 열혈청년들로 혁명적당조직을 내었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적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의 정지적기적이었다며 10대의 젊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정지적령도력, 위대한 인격의 일대 파시였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혁명의 투쟁은 이때부터 항일대전의 지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첫 당조직이 결성된 얼마후에는 온성일대의 혁명적핵심집단으로 국내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젊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안의 동맹일대, 북부조선일대에 수많은 기출당조직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었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어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되도록 되었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체제는 더욱 정연하게 확립되게 되었다.

간고한 항일투쟁의 나날에 이룩된 이런 고귀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방투쟁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 밑에 결성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당의 기출당조직을 내오고 확대해나가는 모태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어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직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결코 두루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인격을 천품으로 지니신 결세의 위인, 일찌기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불멸의 넓고도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력사적업이었다.

사대와 교조가 강물처럼 범파하고 있던 그때 이제 겨우 투쟁의 첫 걸음마를 10여명의 세 세대 열혈청년들로 혁명적당조직을 내었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적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의 정지적기적이었다며 10대의 젊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정지적령도력, 위대한 인격의 일대 파시였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혁명의 투쟁은 이때부터 항일대전의 지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첫 당조직이 결성된 얼마후에는 온성일대의 혁명적핵심집단으로 국내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젊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안의 동맹일대, 북부조선일대에 수많은 기출당조직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었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어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되도록 되었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체제는 더욱 정연하게 확립되게 되었다.

간고한 항일투쟁의 나날에 이룩된 이런 고귀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방투쟁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한해되고 가장 추운 절기인 대한을 박두한 때였다.

따스한 계절에 오시어도 되지만 굳이 살을 에이는 것만 같은 장구추위를 위하여는 평양에서 평양(당시)을 찾으신 경에 하는 장관님,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장관님의 심중에서 뜨겁게 뚫고나온 것이었는가. 잠깐 밖에서 서있자고 하려도 몸이 얼어드는 날에 장관님께서도 하여 공작당원들은 최후스러운 마음을 감지 못하였다.

공작당원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에 하는 장관님께서는 혁명적당조직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더듬어 보시었다.

장립후 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공작당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수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경에 하는 장관님께서는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는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더듬어 보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을 남보다 잘 인솔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격을 우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수령님의 현상은 우리 인민에 대한 헌신의 한생이었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헌성을 바치신 수령님의 높은 뜻을 우리 인민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구현한 지침으로 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침을 새기는 공작당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버이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념원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웃음이 차려지게 하려고 그처럼 추운 겨울날에 다른 곳도 아닌 백두산장군들의 불멸의 업적이 수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장관님의 심중에서 뜨겁게 뚫고나온 것이었는가. 잠깐 밖에서 서있자고 하려도 몸이 얼어드는 날에 장관님께서도 하여 공작당원들은 최후스러운 마음을 감지 못하였다.

공작당원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에 하는 장관님께서는 혁명적당조직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더듬어 보시었다.

장립후 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공작당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수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경에 하는 장관님께서는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는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더듬어 보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을 남보다 잘 인솔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격을 우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수령님의 현상은 우리 인민에 대한 헌신의 한생이었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헌성을 바치신 수령님의 높은 뜻을 우리 인민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구현한 지침으로 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 오로지 인민을 생각하시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 포전길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

## 도이칠란드런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배틀린  
도이칠란드런방공화국 대통령 크리스티안 울프각하

나는 당신이 도이칠란드런방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전에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경제적인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양

주제99 (2010)년 7월 2일

## 형길에서 차를 멈추신 사연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참으로 위대한 력사이다.

그 갈피갈피에 있던 하나하나의 진실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가장 훌륭한 고사이다.

이것이 문득 문득사에게 차를 천히 돌려 물고고 이르시었다.

가과온 개개길에 들어서면 서부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가던 그는 의아함을 감지 못하며 주위를 살피보았다. 차장밖으로는 비탈밭에 심은

강냉이들이 선들바람에 춤추듯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광경을 볼수록 바라보시었다. 차가 밟고 가는 길에 밟혔을 때 그이께서는 차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었다.

차에서 내리시어 주변을 둘러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밟고 들어오셨다.

강냉이이삭 한개를 손수 따서 문질러주시며 알알이 먹어주시는 모습이 그이에게는 확실히 새겨져 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전국도처에서 민회적참사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것으로 하여 민회적은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있었다.

후반 랑사부분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승용차가 멈춰있던 자리를 탐사하였는데 그 일대가 온통 민회적매장지라는것이 확정되었다.

일꾼들은 이 희한한 사실을 놓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해박한 지식과 과학통찰력, 비상한 판단력을 지니신 천재적위인이시라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정 순 화

## 하나의 작품품종에도

주제 52 (1963)년 8월 어느날이었다.

비내리는 늦은날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배천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에서 심고있는 발버와 완두콩을 비롯하여 여러 작물품종들을 보아주시면서 작품을 선택하고 배치하는 사업을 군의 토양조건과 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생육기일이 짧은 완두콩을 앞 그루작물로 심어볼데 대한 문제, 비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작물들은 논과 밭에 심지 말고 데 대한 문제 등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그러시고서는 밭과 보리, 그루조에 대하여 알아보시었다.

그곳 일꾼들로부터 그 생산량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하시며 확실히 연안, 배천군에서는 그루조가 잘됩니다. 이제는 확증되었소, 이번

에 그루조에 대해서는 결론을 지었소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모든 알곡종자들은 이삭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그러자면 종자도 연구해야 하지만 씨뿌리기방법도 연구해야 하고 더욱 좋기는 모든 씨뿌리기를 기계로 할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에게 해방말리 힘든 농사일에 수해받지않고나이라 알곡종자도 부족 넘어 인민들의 행복을 생활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깊이 새겨주신 자우명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부문 지도일군 및 농업과학자회의를 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지금 간직자를 개간하여 경지면적도 높이고 경지제도도 조성하고있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농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농업과학자들은 농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맡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농업과학자들이 우리 나라 농업의

##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신 아버지 수령님의 기록한 현저적의 자욱은 인민생활향상의 동등이념을 지방산업공장을마다에도 뜨겁게 이리여하였다.

그중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와 경에하는 장관님께서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몸소 찾으오시어 편지물생산을 새로운 전향을 일으켜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도록 뜻이 손잡이 이끌어주신 순천 편지공장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편지공장에서 우리 나라 섬유를 가지고 여러가지 뜨개옷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당창건 65돛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부글부글 끓고있는 순천편지공장을 찾았다.

공장의 한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거운 추억의 세계로 이끌었다.

우리 인민들이 더 잘 살게 해주시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였는지 아버지수령님께서 당창건기념일에 두루 앉으시어 지방산업공장을 찾으오시어

생산하여 공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공장을 돌아보시며 긴양말기, 짧은양말기, 양말바지기를 비롯한 여러 기계를 보아주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어 너저결게바지도 생산하고 비닐양말과 양말바지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따 뜻이 일깨워주시 아버지수령님.

어린양말이며 아늑한양말, 학생제사를 비롯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양말색깔까지 몸소 헤아려주시고 어린이양말을 많이 짜며 학생이닐론제타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는 편지물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리 인민들은 천부적인 리인들이 양말이며 뜨개옷에 이르기까지 그처럼 깊은 관심을 두리시는 인민의 아버지가 하시 세상 또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생각으로 경경을 감지 못해하였다.

공장의 외부를 돌아보시면서 공장외부 환경을 잘 꾸리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신



세계적사업인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밝히기 위하여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생산수자만 따지지 말고 로동자들의 생활에도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천어버이사랑을 기울여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장을 우리 나라의 비닐론섬유로 맺시었고 절친 여가친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편지물생산지로서 든든히 꾸리고 공장리운영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순천편지물생산지로서 만물대대해서도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뜻깊은 이날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공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장관님께서는 양말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시대로 비닐론양말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비닐론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것만큼 비닐론으로 양말을 짜야 양말생산물도 훨씬 늘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새타를 생산할데 대한 문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검사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본사기자 김 준 혁

#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자

## 총공세의 열풍을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강철생산에 대고조의 불길들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오늘의 대고조력전에서 공격속도를 늦추면 그만큼 강성대국건설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계속적인, 계속적인, 계속적인! 이것이 강선로동계급의 변함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이렇듯 온 련합기업소가 불도가나나 불부름불들고 강철생산에서 거세찬 열풍이 일게 된것은 이당위원회가 당조직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방편있게 짜고뒀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따돌려서 꿋꿋하게 버티고 공작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힘을 넣은 문제는 강선로동계급이 자기들끼리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며 일해나가기로 하신데 모든 교양사업을 지향시켰던것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멘앞장에 내세워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향방 없는 은정은 강선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믿음과 사랑이 크다고 맹세한 다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에 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강철생산에서 당원들이 대고조력전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철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한 내용으로 해설당화지도를 만들어 기업소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정치사업을 일제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1 강철직장안의 당세포들에서 당원들이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원들은 몸소 강선로동계급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켜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향방 없는 은정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주면서 강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말고 강철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소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어떤 광풍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되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대고조의 불도가에 열풍을 불어주는 총공세가 되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강철생산전투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공세를 제기하게 되었다.

보산제철소에서 3 회회전로 보수전투가 벌어졌을 때였다. 로보수전투장에 들어간 당위원회일군들은 전투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능란하게 진행해나갔다. ...

이제 이 시각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을 지켜보고계신다. 당원들은 수평적사용자의 전투투사, 대고조력전의 일선용사들이 승리의 진격로를 육탄으로 열어제끼자. ...

이때 정황을 민감히 포착한 제철소초급당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고 다진 한 로동자의 결의를 망두해 주었다.

로보수전투장은 격정의 파도가 일렁일었다. 전투원들도 두가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에 있었던 일을 뜨겁게 추억하며 결연히 일터였다. 결사권이 벌어졌다. 당위원회일군들과 제철소초급당일군들이 내뱉는 열정을 지고 내달리자 온 전투장이 열정의 도가니로 더욱 끓어번졌다.

이들은 내뱉는 열정적투쟁속도를 높이 좁은 기일안에 로보수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1 강철직장, 주원로직장, 압연직장, 합금철직장에서도 세차게 타고왔다. 대고조의 거세찬 열풍속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강철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나가기 되었다.

대고조력전 치열하게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은 당원들을 움직이고 당조직을 발동하는 이런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박력있게 벌어나가게 하였다. ...

### 조건문제가 아니었다

#### 허천강 4 호 발전소에서

오늘의 대고조전전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허천강 4 호발전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담하게 용단을 내리며 돌이 크게 일단을 벌이고 내뿜어 막대한 열과 불을 없애고 없던것도 생기는 길이다.》

총공세의 해인 올해에 이곳 발전소에서는 생산공정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발전기를 보수하는 문제, 중업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해나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매우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고 성과적으로 돌파해나가고있다.

다른 단위보다 조건이 좋았다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2월에 진행된 발전기 보수전투과정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발전기를 보수하려면 3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총공세의 해인 올해에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소양 김동철, 부원장서 문춘권, 공경지서 인방선 등등들은 진지하게 사색하고 탐구하면서 발전기보수기일을 단축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찾은 방도중의 제일방도는 그 어떤 자재보장조건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발동이었다.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발전기보수전투로 돌

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였다. 발전기보수전투장에서 는 낮과 밤이 따로없는 돌격전이 벌어졌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중업원에 며칠이 걸려야 하였던 수차내보수수를 단 이틀동안에 해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어 돌파구를 열어나갔고 매일 불식도 차려주어 전투성이 향상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발전소에서는 30일이 걸려야 한다고 하던 발전기보수를 불과 12 일동안에 해결하고 전력생산의 등운을 높이 올려나갈수 있었다.

이곳 일군들이 지난해에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고기와 담배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은 사실을 놓고봐도 그렇다.

사실 수평발전소에서 짐짐우리를 건설하여 자체로 고기를 생산한다는것은 불가능한것으로 간주되고있었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경기면적이 제한된 조건에 맞게 발전소의 어느 한곳의 작은 부지에 종합적인 짐짐우리를 건설해놓았다. ...

### 누구나 자력갱생선구자로 되게

#### 신창청련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의 자력갱생선구자가 되려면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 대주어도 제힘으로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망창청 65톤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신창청련탄광에서 내세운 석탄생산목표는 매우 방대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탄광의 한 일군은 모든 계층으로부터 제힘을 받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든든한 배신을 가지고 대고조의 진격로에 내달리고있다. 혁신의 앞에는 2갱, 5갱, 3갱의 탄부들이 서있다.

탄광이 올해의 석탄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탄부 단위를보다 조건이 좋거나 우에서 필요하면 특별히 호ощ해주시가 아니다. 비결은 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과 탄부들속에 제힘이 제일이고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판심을 세워주고 《자력갱생이 살길이다!》는 구호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열게 이끌어내었다.

탄광이 올해의 석탄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탄부 단위를보다 조건이 좋거나 우에서 필요하면 특별히 호ощ해주시가 아니다. 비결은 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과 탄부들속에 제힘이 제일이고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판심을 세워주고 《자력갱생이 살길이다!》는 구호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열게 이끌어내었다.

### 전투장을 쫓아다니는 경제선동

안주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에 힘있게 떨쳐나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모든 탄광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련계를 총동원하여 경제건설의 중요전투장을 집중적으로 들이대며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정치사업에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킬수 있게 화선식으로 실효성있게 벌어나가도록 전투장마다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같은 혁명적열정과 기상이 락 차넘치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일군들이 한개 탄광씩 담당하여 집중적으로 도와 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합일유격대식으로 전투현장에 들어가 경제선동을 화

선으로 벌어나가게 하고있다. 탄광일군들의 발길은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에 세차게 일고있다.

창남탄광에 내려간 당일군들은 세호영에 들어가 당세포비서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긴밀하게 짜고 들어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을 혁명적대고조 열풍속에 높여 올게 노력하고 있다. ...

당일군들은 탄부들과 함께가 탄부들과 고클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전투적사기와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당일군들은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고 설참이며 그들에게 탄광에 나선 전투적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힘있게 불어일으켰다.

당일군들이 탄부들과 함께한가마바를 먹으면서 망창청 65톤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영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깊이 심어주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이게끔 탄광장은 부름부름 들끓었다.

세호영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면서 말

망 위원회에서  
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매일 넘겨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신리탄광에 내려간 선전선동부일군들도 탄부들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특색있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갱입구에서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혁신자축모임을 특색있게 진행하여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탄부들과 함께 갱망장에 들어간 선전선동부일군들은 함께 일도 하고 혁신자들의 긍정적성향자료들을 전수조치를 통해 널리 소개도 해주었다. ...

당위원회일군들의 전투적이며 박력있는 경제선동에 고무된 롱림, 화봉, 태향, 철리, 립석, 연봉탄광에서도 석탄생산목표의 불길에 활활 타올라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일떠선 안주탄련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대단하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작전적으로 더욱 제기게 벌어나가고있다.

###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 평양객화 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정치사업은 화선전선, 화선선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양객화차대 전투현장이 혁명적대고조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의 선행부문을 지켰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6월 객차수리전투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평양객화차대 전투원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하지만 이ழ한 성과에 만족하랴.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초검담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더 빨리, 더 기운차게 내달리자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능란한 화선정치사업은 이를 증명해 보였으며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릴일이 높고있다.

이제 새로운 전투과제는 방대하고 난관은 의연히 접쳐들었다. 자재를 비롯하여 부족되는것이 많았다. 그렇다고 우에서 대주기를 기다리겠는가. 전투원들의 피를 흘려주는 당일군들의 전투적인 호소가 전투장 곳곳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고있다.

자기 힘을 믿으면 천리도 지척이지만 제힘을 믿지 못하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이다. 전화의 나발 불비싸아지는 포연속을 헤치며 전선수송을 보장하던 그 정신으로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자.

초급당지사 방학덕동무의 박력있는 화선적선동선입이 전투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오늘의 대고조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열어제끼야 한다. 이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평양객화차대의 전투원들모두가 내부에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선다. 승무대대 전투원들이 객차내부의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선데 있어 객차수리주대대, 정비주대, 열차검사주대대 전투원들도 서로의 창조적열과 열정을 합쳐 객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킬 확고한 방도를 찾아내었다.

백두대간에 차넘치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객차수리전투현장에 한껏 넘쳐나고있다.

이룩한 성과에 도대하여 더 큰 성과로 힘차게 돌파해나가고있는 평양객화차대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에서 보듯이 객차수리에서는 열린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함철웅

#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과 일군들의 창조적일본새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지난해 11월 신의주신발공장을 또다시 찾아오시어 새로 꾸민 신발생산공장을 돌아보시고 이곳 로동계급이 만든 각가지 신발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공장의 현대화와 신발의 질제고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 해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애 넘친 평가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더 높은 신발생산성파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날이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일군들은 천리마대고조시대의 일군들처럼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경제발전과 조직, 지휘를 혁명적으로 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지배인 김상욱, 기사장 리혁동무와 수많은 초급일군들,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대로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아갈때보다 노력한 일군들의 사업경험에서 주목할만한 문제점들을 찾아볼수 있었다.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틀어쥐고 과학적라산에 기초한 경

### 신의주 신발공장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제작과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으로 모든 잠재력과 예비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장 큰 성과를 올리는 공업유산문제부터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으로 현대화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딛고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의주 신발공장 일군들은 참으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공장의 기업전략은 한마디로 모든 생산공정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10년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후 일군들은 새로운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공장의 위대한 배일을 설계하였다. ...

공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절실한 문제, 당면한 과제이면서 조 항구적인 요구로 용수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뉘비람이 일었다. 일군들의 참신한 화선정치사업에서

최첨단 공정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기업을 벌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나서고있다.

이 문제를 놓고 참모부일군들의 힘겨운 고충이 생겼다.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첫 단계에서 실현한것이 사출직장의 단색사출장화생산지였다. 경영연성에서 이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때땀이 흘려났다. 공장에서는 대답하고 용이 크게 일관을 벌여나가는 시 자체의 힘으로 단색사출장화생산지지를 훌륭히 꾸리었다. ...

수 있다는 진리를 더욱 굳히게 되였다.

이렇게 되어 온 공장에 공업용수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뉘비람이 일었다. 일군들의 참신한 화선정치사업에서 최첨단 공정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기업을 벌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나서고있다.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첫 단계에서 실현한것이 사출직장의 단색사출장화생산지였다. 경영연성에서 이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때땀이 흘려났다. 공장에서는 대답하고 용이 크게 일관을 벌여나가는 시 자체의 힘으로 단색사출장화생산지지를 훌륭히 꾸리었다. ...

하지만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결사관철의 의지와 신념으로 대중을 불리이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총동원시켜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하였다.

최첨단 공정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기업을 벌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나서고있다.

이 문제를 놓고 참모부일군들의 힘겨운 고충이 생겼다.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첫 단계에서 실현한것이 사출직장의 단색사출장화생산지였다. 경영연성에서 이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때땀이 흘려났다. 공장에서는 대답하고 용이 크게 일관을 벌여나가는 시 자체의 힘으로 단색사출장화생산지지를 훌륭히 꾸리었다. ...

우려 4개의 보이로를 완전히 없애고 해마다 수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게 한것이다. ...

최첨단 공정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기업을 벌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나서고있다.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첫 단계에서 실현한것이 사출직장의 단색사출장화생산지였다. 경영연성에서 이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때땀이 흘려났다. 공장에서는 대답하고 용이 크게 일관을 벌여나가는 시 자체의 힘으로 단색사출장화생산지지를 훌륭히 꾸리었다. ...

행하여 현대화실현의 성과를 공고히 해나가고있다.

이 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특별한 주목되는 점은 3위 1체가 잘되고있는것이다.

공장에 가면 사람들속에서 《3위 1체》라는 말을 번번이 들을수 있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들의 착상이거나 실력이기 전에 당조직에서 대중의 창조적열과 힘을 최대한 조직발동한 결과에 이룩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이러한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고, 기내에서 불평불망이 생겨났다. ...

# 원 흥 땅 에 새 거 진 선 군 시 대 영 용 서 사 시

## 세계적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건설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의 투쟁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선군시대, 21세기의 만집짜리 기념비적창조물입니다.》  
원흥땅에 세계적인 과수종합농장이 만년대계의 재부로 훌륭히 일떠섰다.

이 회한하고 황홀한 사회주의

의 무릉도원을 우리의 내무군병사들이 한해나잇한 기간에 일떠세웠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운 우리의 내무군병사들이 원흥땅에 아로새긴 애국충정의 자욱을 더듬으며 그 나라의 영웅적투쟁이야기를 전한다.

모를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은 밭없이 그의 손을 잡고 우뚝볼쪽으로 갔다. 지휘관의 눈에는 눈물이 번뜩였다.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그들의 《집》이었다.

병사들은 그 《집》안에 기대어 잠간 눈을 붙이고는 다시 전투를 벌였다. 그러다보니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활활 타올랐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병사들은 불망치를 만들어 들고 포진가운데로 들어갔다. 온밤 원흥땅은 불의 바다였다.

아침에 가 떠올 때 까지 그들은 사과꽃을 지키 밤을 밝히었다. 그들은 그해 봄을 《우뚝볼의 봄》이라고 불렀다.

《우뚝볼의 겨울》이 불어 나면서 수실풀의 과수원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였다. 온통 감람이 개발된 사과나무들을 본 병사들은 너무나 안락가와 몸부림쳤다.

그들은 즉시 소쟁이, 바께뜨 등 용구들을 손에 잡히는데로 들고 과수원에 달려나갔다.

《이 봄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사과나무들을 꼭 살려야 한다.》  
《사과나무야, 꼭 살려서 아버지장군님께서 오는 날에 향기 그윽한 열매를 보여드려다오.》  
그들의 모습은 아기를 위해 사랑과 정을 다 쏟는 어머니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의 내무군병사들은 한그루 한그루 나무모를 이처럼 사랑과 정을 다해 심고 가꾸며 꽃피웠다.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인민보안원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들어갔다. 밤에 골짜기에 콩크리트층마치는 오늘 밤까지 그들은 사과꽃을 지키 밤을 밝히었다.

《정 이리거가.》  
그러자 흥남구역의 한 인민보안원이 이렇게 말했다.

《우뚝볼은 요즘 낮이 밝고다 길다는것을 모르누만.》  
그리고는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이 밤도 전진길에 계시겠는데...》  
밤이던 그 밤에도 전진길에 게실 장군님을 그리고 동이 터오면 그 새벽에도 전진길에 떠나실 장군님을 생각하며 전투장으로 달려나오는 불같은 마음!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이것은 골재보장전투원들의 심장만이 아니었다. 어느날 농장의 한 일군이 단층살림집의 콩크리트층마치는 오늘 밤까지 그들은 사과꽃을 지키 밤을 밝히었다.

《정 이리거가.》  
그러자 흥남구역의 한 인민보안원이 이렇게 말했다.

《우뚝볼은 요즘 낮이 밝고다 길다는것을 모르누만.》  
그리고는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이 밤도 전진길에 계시겠는데...》  
밤이던 그 밤에도 전진길에 게실 장군님을 그리고 동이 터오면 그 새벽에도 전진길에 떠나실 장군님을 생각하며 전투장으로 달려나오는 불같은 마음!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막막한것은 우리가 건설하는 다락밭과수원이 이곳 원흥지구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이 책임일군만이 아닌 인민보안원들의 한결같은 심장이었다. 하기에 그들은 6개의 산봉우리가 3개가 되도록 산마루를 허물고 골짜기를 메우며 마대전을 벌리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누구나 찬란을 아끼지 않는 《다락밭과수원의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하는 생각을 심장을 불태웠다.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오늘처럼 하루에 1만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200여일이 걸려야 올해에 조성한 수백정보 과수원에 나무를 다 심을 수 있소.》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사과꽃피는 계절에 오시면 나무를 다 심지 못한 포진을 보여드리겠다는가고, 아니, 억척만민 죽더라도 매일 5만그루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40일동안에 가이어 나무심기를 끝내야 한다고, 산골짜기마다 물잡이푹을 만들고 물원천을 찾아내기를 위한 총결사전을 벌리자고 호수 하였다.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 4 0 0 0 여 리, 그 날 의 자 욕 을 잊 지 말 라

지난 6월 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셨다. 그날 장군님께서 지난해에 비하여 몇배에 달하는 수백정보의 과수원토지구획이 모두 파괴될수 있소.

《안됩니다. 폭파하면 이미 과농고 거름까지 넣은 주변의 전조식구멍이 모두 파괴될수 있소입니다.》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병사들은 슬가락을 놓고 포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옷들을 벗어 꽃이 핀 사과나무에 띄웠다. 그것을 보고 대동강이 고향인 한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발머리에 우뚝볼을 피운다.》  
그때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날 밤 사과꽃이 하얗게 핀 포진들보다 우뚝볼이 더 아름답다.

안면까지 병사의 착상은 운전수들의 찬성을 받았다. 우뚝볼이 타올랐다. 그때부터 우뚝볼은 낮이나 밤이나 꺼질 줄 몰랐다. 그 우뚝볼자리마다에서는 불도끼가 울을 쫓았다. 우뚝볼과 더불어 병사들은 물결파와 포진도 내고 콩크리트까지 대대 세워나갔다. 병사들은 정대과 함부로 전조식구멍이 팔라갔다. 자기가 지난번부터 누구나 손에 물집투성이었다.

어느날 병사들과 함께 전조식구멍이 파나가던 조선인민내무군 리수경소속부대의 한 지휘관은 함소리로서 새벽하늘을 쟁쟁어 울리는 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 교대하오.》  
그러자 병사는 함미를 등뒤로 감추며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긴 어서 함마를 내놓소.》  
지휘관은 병사가 등뒤에 감춘 함마자를 잡아당겼다.

순간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휘관은 훑쩍 놀랐다. 병사의 손이 그대로 함마자루에 봉대를 청정 검격쳐 있었다.

《함마자루가 미끄러워서...》  
지휘관은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장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소, 명령이요.》  
그러자 병사는 펠릭 뛰었다.

《안됩니다. 3월부리는 나무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 상 을 찾 아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일 박봉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과 흥된 민주주의적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정생을 바치기로 하였다.

###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무용단 평양에서 공연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무용단이 2일 동맹문화극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안동문화사, 조선로씨야 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진욱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평양시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 부장, 예술인, 기자, 편집인, 근로자들과 알렉산드르 미셸로프 주조 로씨야연방 립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로씨야예술인들은 자기 나라



로씨야 예술인들은 자기 나라 무용들을 제인 안상불과 제지있는 기교, 열정적이고 기백있는 춤동으로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로씨야무용 《첼라》, 합대무용조곡 《군함에서의 하루》 등에서 로씨야권대의 인민의 열렬한 조국애와 락진적정신을 감명있게 형상화하였다.

아제르바이잔무용 《동독들》, 우크라이나무용 《교박코-폴로》, 벨라루시무용 《블바》, 몰도바무용조곡 《능청스러운 마까누》를 비롯한 중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들을 제인 안상불과 제지있는 기교, 열정적이고 기백있는 춤동으로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로씨야무용 《첼라》, 합대무용조곡 《군함에서의 하루》 등에서 로씨야권대의 인민의 열렬한 조국애와 락진적정신을 감명있게 형상화하였다.

## 혁명적대교조의 《산울림》에 화답하는 심장의 목소리

### 자 강 도 안 의 일 군 들 과 근 로 자 들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산울림》계관작품 경회극 《산울림》공원이 회전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산울림》공원은 혁명적대교조로 힘차게 대교조전의 앞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온 자강도를 들끓게 하였다.

### 독자의 정지

자의 남편은 오랜 기간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였고 현재 자식들도 다 군관에 복무하고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에 자신들의 뜨거운 성의를 바치고있는 박봉호, 박성철 등 무명을 비롯한 사리현태운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이름다운 소행을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 진 혈 육 의 정

진절자제들과 함께 남편에게 줄 보약까지 마련해가지고 찾아온 그들은 곧바로 태운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입니다. 기업소의 일도 바빠했는데 우리 집매물에도 마흔다섯 명을 제대군관들과 후방가족들을 잘 도와주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산울림》에 화답하는 심장의 목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는데서 청춘의 열정과 심장을 바쳐 갈 심정을 흥분케 하였으며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자강도위원회 위원장 리수동무는 시대의 시대를 이어주는 경회극 《산울림》이 커다란 정력적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고있다. 경회극 《산울림》을 창작한 창작가, 예술인들의 불타는 열정과 투쟁기풍을 따라올래 못 많은 명작을 창작하는것으로써 자강도국의 《산울림》을 더 높이 울려갈 결의를 다지였다.

《산울림》공원은 혁명적대교조로 힘차게 대교조전의 앞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온 자강도를 들끓게 하였다.

《산울림》공원은 혁명적대교조로 힘차게 대교조전의 앞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온 자강도를 들끓게 하였다.

《산울림》공원은 혁명적대교조로 힘차게 대교조전의 앞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온 자강도를 들끓게 하였다.

《산울림》공원은 혁명적대교조로 힘차게 대교조전의 앞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온 자강도를 들끓게 하였다.

### 대원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일 사동구역 조선라오스친선 대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영도사적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이곳 농장에서 손님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밀타곡을 하였다.

### 중 국 국 가 라 지 오 영 화 T V 방 송 총 국 대 표 단 귀 국

전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가라지오영화 TV방 송총국대표단이 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자 강 도 안 의 일 군 들 과 근 로 자 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교조전의 앞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온 자강도를 들끓게 하였다.

### 자 강 도 안 의 일 군 들 과 근 로 자 들

《우리에게는 이미 콩크리트 기초구조물을 함과 정대로 까면 경일이 할수 있소.》  
《우리는 지금 우리 장군님께서 전진길에 계시겠는데...》  
《안됩니다. 폭파하면 이미 과농고 거름까지 넣은 주변의 전조식구멍이 모두 파괴될수 있소.》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우뚝볼의 겨울》은 그렇게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은 사과나무마다에 하얀 꽃을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발을 먹던 병사들은 밤에 서리가 내릴것 같아 예견된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 남녘 땅에 굶이치는 한없는 그리움의 대하

우리 민족의 가슴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7월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대하가 되어 끌어들여 굶이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잊혀지지만 이리하여 그리움이 남아있고 그 그리움이 남아있을수록 김일성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은 더욱 불타오른다. 정말 김일성수령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한평생 로고를 바친 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니이다.》

《천만세월이 흐르면 어찌 김일성수령님을 잊을 수 있었습니까. 날이 갈수록 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 대단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금수산기념궁전에 가 있습니다.》

《태양은 영성의 상징입니다. 력사는 명망높은 명수들을 기록하고있지만 남조선로서 영성하시는분은 오직 인간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수령님뿐입니다. 력사적 공적으로 사상과 정치적, 인격적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력사의 위인들을 다 합쳐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성인입니다.》

남조선의 한 민심탐방기자의 취재수첩에 적힌 이 글을 통해서도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더 못 잊어 버리는 남녘사람들의 뜨거운 정을 느낄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잊지 못해

받은 새우고 그리움으로 날을 보내는 사람들중에는 제주도에 서 사는 한 주민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나나까나 통일만을 생각하 시며 온 민족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싶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늘 이리시던 김일성수령님의 모습을 세월이 흘렀다고 어찌 잊을수 있었습니까. 김일성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통일정책들에 그이의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과 한평생의 의지가 깃들여있기에 우리 겨레가 주석님을 그토록 못 잊어 하는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한평생과 업적은 력사와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는 법이다. 남녘겨레의 심장에 뿌리내린 그리움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과 쌓인 불멸의 업적, 조국과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대한 청중의 분개이고 태양영성의 신념의 분개이다. 시골의 한 퇴직교수는 집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수령님처럼 인민 위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으니 세인들의 절대적인 경교와 칭송을 받으신 위인은 동지외에 없다. 우리는 민족의 영웅을 영원히 잊지 말고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팔고 싶네. 주석님에 이어가야 할 길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부산의 한 인사는 《남에 살 건 북에 살 건 해에 살 건 우리 민족은 누구나 김일성수령님의 제자이며 아들 딸들이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주석님을 더욱 그리워 하며 마음의 기둥으로 영원히 믿고 따르려는것은 우리 남녘 민중의 한결같은 념원이다.》라고 추추초초는 격정을 터쳤다. 남조선강원도의 한 지식인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있었지만 김일성수령님처럼 세계를 품어하는 숭고한 정치리념과 충정 한 향토적, 고결한 인품을 겸재하고 장구한 나날 민족과 인류를 위해 헌신해 오신 그런 위인은 없었다. 평정 김일성수령님은 우리 민족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이틀뿐이 아니라. 대한의 한 녀성단체원은 어느 한 모임에서 《날이 갈수록 주석님에 대한 호모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우리 민족, 우리 겨레는 주석님을 일찍부터 기억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심으로 부르며드러 그분께 운명을 의탁해 왔었다. 그러기에 우리 겨레는 오늘날도 주석님을 잊지 못하며 끝없이 그리워하고있는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수령님은 우리 겨레의 어버이시요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디.》 《민족의 하늘이신 김일성수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울려나 온 이러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영현히 만들어모시려는 남녘겨레의 심장의 쉼지없는 것이다. 일찌기 태양의 존함을 지니 시고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셨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분별주의 로고와 심혈을 깙 그리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정녕 애국애족의 빛나는 한평생이었다. 하기에 오늘날도 남녘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삶도 피망도 다 말고 그 사는 마음의 기둥이었고 로 물의 전부였다고 절절히 토로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청주에서 사는 한 퇴직 교수의 제자들에게 《김일성수령님의 한평생을 돌이켜볼수록 그이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군들도 아는것처럼 단군 김일성수령님의 해어지지만 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김일성수령님과 같이 민족과 겨레를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바치신분은 없다. 백두원에서 군사를 일으켜 조국을 찾아오신분도 주석님이시고 이웃에 민중이 복락하는 세상을 세우시고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시각까지 우

리 겨레에게 통일조국을 선물하시려고 심혼을 다 바치신분도 주석님이시디. 김일성수령님과 같은 위인은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력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김일성수령님을 생전에도 태양으로 우러르고 서거후에도 태양으로 우러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나는 저 하늘의 태양이 영현 하듯이 김일성수령님은 우리 민족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영원한 태양이라고 소리높이 웨치고 있다.》

태양회 회원 김유학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에 넘치는 햇빛을 우려 리 이날민중은 김일성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졌는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인류의 자취유움을 이끌어 주신 김일성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운동을 다그쳐온 우리들이다. 김일성장군님의 평도야해 김일성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 민족의 밝은 앞날, 인류의 찬창한 태양이 마중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그리움은 경에 들어 있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자주주권의 새날을 안아오려는 신념의 맹세로 불타오르고있다. 위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한없이 경교하며 따르는 우리 겨레의 그리움의 대하는 민족수와 더불어 영원히 굶이칠것이다. 김현철

### 북침전쟁기도를 드러낸 추악한 공모결탁

폭로된바와 같이 얼마전 해외에서 리명박역도는 미국대통령 오바마에게 《전시작전통제권한》을 2015년까지 연기해줄것을 간청하여 합의를 친미역적행위를 저질렀다. 지금 리명박역도는 미국상진이 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준데 대해 심히 기뻐하면서 그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발벗고나서고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가 《주변상황변화를 반영》한것이지니, 《리해해달라.》느니 하는 따위의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고도 여러성계 놀아내고있다. 하지만 이 글속적인 논을 깔린 흉악한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가려울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논을 상전과 주구의 추악한 공모결탁의 산물로서 그들이 추구해온 북침전쟁기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역당이 상전에게서 허가받은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는 말이 연장이지 사실상 남조선의 공통수권을 완전히 포기한것이나 같다.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하루도 지탱할수 없다는것이 역적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한》을 연장한 리유인 하나이다. 겨레의 존엄과 리의를 팔아 더러운 전명을 부추기려는 이런 사태배우도, 역적배들은 보다 처음이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군대에 떠맡길 곳은 오직 남조선밖에 없다.》

역적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을 결코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구실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면 당장 무슨 큰 일이 날것인지 국수 반대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배주적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꾀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수수 없는 우롱이고 중대하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공통수권에 관한 종대한 문제가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뒤거래》로 갑자기 이루어져 인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고 전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로 황제 한정은 바로 미국이다. 오바마행정부가 유당 돌려주어야 할것을 도로 빼앗고도 피뢰당국의 《요청》에 마치 큰 전심이나 쓴듯이 냉세를

피우지만 그 리면에는 용용한 속사산이 깔려있다. 벌써부터 항간에서 미국이 피뢰당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 《미군방위비분담금》 문제, 아프가니스탄과병병체 등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그로써 모태되는 엄청난 부당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걸려 지게 되겠다는 소리가 떠돌고있는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 사태의 엄중성은 그에만 있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로 남조선정부를 더욱 손아귀에 틀어쥐게 된 미국은 보수패당을 북침전쟁도발의 돌격대로 써먹고 있다. 상전의 비뢰회와 기고만장형제 역적패당은 저들의 범죄적인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할수만 있다면 남조선은 통째로 미국에 섬겨버리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미제의 전쟁사냥군으로 서슴없이 나서려 하고있다. 지금 피뢰패당이 동태와 서태에 미행합공모합친단까지 끌어들이며 대규모적인 련합전쟁영습을 벌여놓으려 하는가 하면 미국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정식 뛰어들어 도발적인 《연례의치난훈련》에까지 참가하려 하는것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실증이다. 이로써 피뢰패당이 미국과 함께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한 모략적행위는 이번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라는 흉증놀음으로 완전히 드러났다. 리명박역당은 이번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의 구결과 추악한 흉증으로써 저들이 미국의 눈도 돌리지 않은것을 세계면전에서 스스로 선포하였다. 그 주제에 《선진국》이나, 《국적》이니 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세상을 웃기는 회피극이다. 《대북협력》이니, 《외세》 등에 업고 민족의 운명을 통략하려는 이런 역적무리를 그대로 두면 남조선인민들이 저처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은 물론 민족이 핵확산을 면할수 없다는것은 더없이 명백했다. 력사와 민족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행동을 반드시 계산할것이며 당대미국노들에게 존엄 철추를 내리고야말겠다. 박철준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피뢰당이 《천안》호침몰사건의 모략적정황이 만천하에 계속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결코 반공화국대결요소로 더욱 악화시켜 매어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이틀을 규탄하는 보도 960호를 발표하였다. 서기국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9일 피뢰국회 본회의에서는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패당이 조작한 그 무슨 《대북규탄결의안》이라는것이 강행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부보수정파들은 《대북규탄결의안》이라는것을 또다시 우리들의 악의에 차서 고집하면서 당국과 국제사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고이갠다. 《한나라당》패들의 《대북규탄결의안》 조작놀음은 내외에서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의혹과 진상규명요구가 날로 커지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논의마저 호칭부지하게 되자 피뢰국회의 이름으로서도 함선침몰사건의 인원을 《북의 소행》으로 내들으로써 남조선 각계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더욱 고취하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단발미적인 발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우리의 경교와 온 민족의 반대에 불구하고 《한나라당》패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함선침몰사건을 결코 얼도당도 않은 그 무슨 《규탄결의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는 놀음을 끝끝내 강행한것을 사건의 모략적정황을 가리우며 반공화국

대결소통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불순한 도발로 락인 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리명박패당이 떠들어대는 함선침몰사건으로 말하면 남조선 안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의혹이 날로 증대되어 제조사 문제 가 상정되고있는 편이다. 사실 피뢰패당이 발표한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는 처음부터 어느 하나도 의혹과 모순투성이로 되어있지 않은것이 없다. 피뢰파자제도 서부터 남조로 짜맞춘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바람에 점점 말쑥거리를 하며 억지변명도 조짐을 빼고있는 형편이다. 피뢰패당은 우리가 국방위원회 결명단을 파견하였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뒤가 쟁겨서 받아 들일수 없다고 생억지를 쓰고있다. 우리는 이번 모략소통의 피해자로서 유당 사건조사에 참가하여 예행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고있으며 피뢰패당을 그것을 받아들이어야 할 의무를 지고있다. 피뢰국회는 그 무슨 《결의안》 제재를 앞서 피뢰패당이 미당히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탄결의안》이오 튀오 하면서 우리는 결코그는 광대놀음에 급급한것은 남조선 《국회》라는것이 어른들로서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권력에 어부하는 무지몽매한 정치지너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거기도 진실로. 검은것도 흰것도 오직 책애는 남조선 《국회》는 정치간상배들의 협잡

당으로 세상에 소문나있다. 동족대결적인 《북인권법》 조작, 미국적인 《아프가니스탄제퍼병동의안》 통과, 파쇼적인 《연호판법》 개악을 비롯하여 남조선 《국회》가 한것이란 온통 민심을 짓밟고 시대의 흐름에 도전하는 악행뿐이다. 그러한 《합참국회》에서 나온 《결의안》이 역시 조조거리로밖에 될것이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른바 《신생한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미국과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 모략소통에 적극 가담하고있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정의와 량심에 대한 힘포무도한 도둑이다. 일은 저들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달라고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놀음으로 남조선 을 미국에 통째로 팔아먹는 전취에 용남 못할 변역의 무리가 바로 리명박보수패당이다. 역적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제아무리 발광해도 그것은 저들의 궁극한 처치를 더욱 더럽혀놓은 것이다. 역적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투대형반공화국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한 저들의 불순한 기도에 대해 민족의 사죄,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사죄하며 심판대에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이번 피뢰패당의 불순한 모략 《결의안》 조작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으며 역적패당을 쓰디쓴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미제의 죄악을 폭로규탄하는 성도모임 진행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의 죄악을 폭로규탄하는 제2 호인선총련합회 성도모임이 6월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북 제2 호인선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신앙심이 깊고있는 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시학학의 성토문 《미국은 비식시인(유엔 군사령부)를 즉각 해제하고 평화협정제정을 내야 한다》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평화옹호중국인민위원회, 미군범퇴진상규명진 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공동성토문이 랑독되었다. 성토문은 미제가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청소년 공화국을 요람기에 앉알하고 세계제야

망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저들의 침략당도와 남조선피뢰군에 간섭하며 북남관계개선과 관련된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고 있다. 회의는 북 제2 호인선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신앙심이 깊고있는 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시학학의 성토문 《미국은 비식시인(유엔 군사령부)를 즉각 해제하고 평화협정제정을 내야 한다》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평화옹호중국인민위원회, 미군범퇴진상규명진 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공동성토문이 랑독되었다. 성토문은 미제가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청소년 공화국을 요람기에 앉알하고 세계제야

로부터 반세기이상 지나가지만 오늘날도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며 북남관계개선과 관련된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고 있다. 회의는 북 제2 호인선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신앙심이 깊고있는 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시학학의 성토문 《미국은 비식시인(유엔 군사령부)를 즉각 해제하고 평화협정제정을 내야 한다》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평화옹호중국인민위원회, 미군범퇴진상규명진 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공동성토문이 랑독되었다. 성토문은 미제가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청소년 공화국을 요람기에 앉알하고 세계제야

### 군사특재 《정권》이 조작한 모략사건의 진상

남조선신문 《한겨레》 6월 25일부에서 의하면 박정희군사파소통제 《정권》이 조작한 모략사건들중의 하나인 《피해살자 유족회사건》 관련자들에게 무리가 확정되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피해살자 유족회사건》은 리승만 통치시기 도처에서 강행된 피뢰군과 경찰들의 집단학살판형에 의해 혈육들을 무참히 빼앗긴 유가족들이 《피해살자 유족회》를 조직하고 피뢰파와 진상규명을 요구해나갔다고 하여 박정희군사특재세력이 《북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를 들춰내 이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들뜬 사건이다. 본사기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번 10월 《5. 16 쿠데타사색이 군, 경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 및 합동묘를 강제로 훼손하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을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고 폭로하였다. 6월 25일 성명서중양자방법원은 리원식을 비롯한 당시 중형 유가족들이 《피해살자 유족회》 성원에 대한 제시당국에서 그대로 무리를 선고하였다. 이들에 하여 피해자들은 50년만에야 억울한 무명을 벗게 되었다. 본사기자

### 반공화국대결을 선동하는 피뢰국 회를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6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반공화국대결을 선동하는 피뢰국회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할것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무슨 《대북규탄결의안》이라는것이 통과된데

해 폭로하였다.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비파확성이 날달이 드러나고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북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아닐수 없다고 문평은 단죄하였다. 문평은 거지로 일관된 《조사결과》의 진상을 밝히

대신 그 무슨 《규탄》이니, 《대응조치》니 하는따위의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안》을 통과시킨 리면에는 《북과 전쟁을 하였다.》는 어리석은 기도도 깔려있다고 까밝했다. 《천안》호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리명박 《정부》가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회》가 동족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결의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문평은 강조하였다. 대신 그 무슨 《규탄》이니, 《대응조치》니 하는따위의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안》을 통과시킨 리면에는 《북과 전쟁을 하였다.》는 어리석은 기도도 깔려있다고 까밝했다. 《천안》호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리명박 《정부》가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회》가 동족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결의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문평은 강조하였다.

### 재가나다 동포들 괴뢰역도를 규탄하는 시위 전개

제2 호인선총련합회 성도모임이 6월 27일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미국명사판에서 리명박역도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천안》호침몰사건을 공화국과 역지로 편

괴뢰역도를 규탄하는 시위 전개

인전에서 흥역 발생



피뢰당국의 《4대강정비》 공사를 반대하는 남조선총교인들

### 제2 차 세계대전시기 비밀공장에 조선사람들을 강제동원한 일제의 죄행 폭로

6월 29일 남조선리베트 신문 《오마이뉴스》가 제2 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비밀공장을 조선사람들을 강제동원하여 노예로동력을 강요한 사실 폭로된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3월 30일 제2 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의 미즈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어찌제작을 위해 나가사키시에 건설하였던 지하공장이 65년만에 공개되었다. 당시 폐망은 눈앞에 둔 일본은 본토에 대한 공습에 대비하여 정부 및 주요군사시설과 공장들을 안전한 곳에 옮기고 전쟁을 계속할 목적으로 비밀경도

공장을 일본국내에 빌려주었다. 특히 일본내각은 군사도시로 알려진 나가사키시에 어찌제작을 위한 미즈비시중공업주식회사 지하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은 강제징병으로 확보할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6개의 경도로 된 공장건설에 조선노동자들만 하여도 10000명이 강제모 끌려가 인강이하의 환대와 열시 속에 노예로동력을 강요당하였다. 공장에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군의 원자탄폭파까지 받게 되었다. 강제 동원되었다가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당시 일제가 조선의 청정년들과 유부녀들을 강제로 공사용으로 끌고와 미군과 같이 부려먹고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평화운동단체인 《나가사키증언모임》의 한 성원은 《이 공장은 일본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가를 알고 반성하는 장소로 되어야 한다. 공장은 비참한 전쟁의 리면에서 파괴를 입은 미즈비시중공업 등 군수산업의 책임을 돌이켜보는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 감출수 없는 반공화국모략극의 내막

서해해상에서 있는 《천안》호침몰사건과 《조사결과》라는것이 우리를 모해안살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꾸민 순환한 모략극이라는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명백해지고있다. 《정치적의도를 가진 유지하고 뻔뻔한 사기극》, 《반공화국모략판대극》, 《선겨용(북풍) 자작극》, 《동족압 살해죄의 국제화를 노린 남조풍》, 《환상소설》... 내외어린들은 피뢰패합선침몰사건에 대해 이런 총평을 내리고있다. 진실은 거지로오 가려울수 없고 자 로의 송곳은 빼어져나오기만하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대결판대극의 진상을 가리우려고 벌인 벌이별 간교한짓을 다하고있지만 소용이 없다. 피뢰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꾸며내었다는것을 입증하는 사실들은 많 다. 그들이 우리 국방위원회 결명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함선침몰사건이 남조수이라는것은 증명되고오 남는다. 남조선당국이 사건발생시간과 함선 침몰지점, 사전발생정황을 여러번 뒤 바꿔달라는데 우선 문제가 있다. 피뢰당국은 처음에는 3월 26일 21시 45분에 함선침몰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그 후 5차례이상이나 그것을 뒤집어 21시 16분으로 수정발표하였다. 침몰지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압초들이 있는 여러 나라들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가를 알고 반성하는 장소로 되어야 한다. 공장은 비참한 전쟁의 리면에서 파괴를 입은 미즈비시중공업 등 군수산업의 책임을 돌이켜보는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는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고 발표 뒤 집었다. 함선이 침몰할 때 폭발에 의한 물기둥을 본 목격자가 없다고 하였다가 그곳에서 얼어 얼어진 배병도의 한 갑사병이 감광한 밤에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보았다고 《진실》하게 하는것과 같은 유사한 놀음도 연출하였다. 사건은 하나인데 발생시간과 지점, 증언이 계속 달라진다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저들에게 불리한 그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요술을 피했다는것을 명백히 시사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천안》호가 침몰된 수역은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고수》를 운운하는 《북방한계선》과 린 접한 수역으로서 피뢰군부가 항시 제계를 수립하고있는 곳이다. 더우기 그때 그 수역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최근 미국의 AP통신은 《천안》호가 침몰된 그날 구축함 2척을 포함한 미군군함들과 피뢰해군부함이 동원되어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실시하고있었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 대변인이란조도 《천안》호가 침몰당시 음파를 쏘아 수중물체를 탐지하고있었다고 확인하였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신문 《콤빠스》는 《〈천안〉호 침몰원인은 수수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천안〉호 침몰당시 그 해역에서 배병도근처까지 하였다가 그후 암초가 나타난것이다. 따라서 안전이 철저치 않았고 인양을 위한 미끄러진 것이 아마초에 의해 침몰되었기 아니라 북서현습참가중이었다. 군사연습에 동원 우겨대기 위해서였다. 사전발생정황과 관련하여서도 이렇다거졌다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사건 발생직후 피뢰군부는 《북의 공격》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

참가한 미해잠수함이 배병도와 가까운 수역에서 비뢰진원무수행중이었다는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천안》호침몰당시의 상황은 바로 이러하다. 그러나 리성적적인 사고력파 판단력을 가진 사리삼조 남조선당국의 선전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얼마전 로씨야태평양함대의 경찰소시동인 《천안》호의 침몰은 《북의 어뢰》가 아니라 미국의 최색연원자력잠수함이 소형잠수기수로 발사한 특수어뢰에 의한것이라고 까밝힌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라는것이 《북의 어뢰에 의한 침몰》설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합작남조수라는것은 내외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피뢰들이 우리 국방위원회 결명단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앙탈을 부리는것도 뒤가 쟁겨서 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거나면 우리 결명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 그런데도 피뢰들은 우리측 결명단을 한사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었다. 우리 국방위원회 결명단을 받아들이는 경우 저들이 일방적으로 꾸며낸 서론 모략극의 내막이 날달이 드러날수 있다는 위구심대문이었다. 남조선 각계가 당국이 북의 국방위원회 결명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계속 거추 부하는것은 사건의 모략적진상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략을 꾸미는것은 위기에 몰린 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총격적인 반공화국모략극을 꾸며 여론의 이익을 때려 물리는것은 남조선전체역이 통치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세운 관에 바친 술책이다. 피뢰패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실들은 파멸의 위기에 직

면한 리명박패당이 외세의 각본에 따라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안살이라는 범죄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공화국모략소통을 일으켰다는것을 용연으로 실증해준다. 남조선당국은 비밀상전들과 야합하여 함선침몰사건의 책임은 피뢰에게 넘겨줘온 모략수법을 꾸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였다. 이어 그 무슨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한다 어쩔다 하더라도 대공소통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도적이 제발 저러서, 범죄자가 뒤가 쟁겨 하는것이다. 피뢰들은 그 어떤 모략과 술책으로써도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반공화국대결에 악용하는 범죄적내막을 감출수 없다. 그럼에도 역적무리들을 두고서는 민족이 제약을 면할수 없다. 저 하나의 권력욕과 부귀향락을 위해 사냥 무렵에는 반공화국대결판대극을 조작한 리명박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언제 그도 바뀔것을 갈수 없다. 《천안》호침몰사건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 전쟁도발행동은 수수방관할 때 우리 민족앞에 들어길수 없는 사태가 조성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하고있다. 함선침몰사건조작자들의 죄과를 철저히 계산하며 그 대가를 천백배로 크게 하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의지이다. 《한나라당》패리들의 참깨로 막을 내린 일마건의 《지방자치제전기》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의 각계 진보세력들과 인민들은 일치의단결하여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 행위를 더욱 날달이 까밝고 범죄자들의 책임을 심판받아 줘야겠다. 위대한 투쟁의 불길은 높이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업 일 규

# 미제의 강도성과 야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조선침략전쟁

조선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60년 세월이 흘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내린지 불과 5년밖에 안되던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리승만피괴역도를 내세워 38°선 전진선에서 일제히 북침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일제의 발발일에서 원한과 한숨소리만이 들려오던 이 강산에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민주개혁의 해례로 우리 인민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고 있던 시기에 감행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의 불의의 무력침공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애상적 못됐던 뜻밖의 재난이었다.

이미전부터 조선전쟁계획을 짜놓고 모든 군사적준비를 갖추어온 미제는 리승만피괴역도를 내세워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는 이른바 《북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구실하에 비법적인 《운열결의》를 조실하여 추종국가군대를 무장시동한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역사에 일찌기 잊어지지 못한 침략세력과 반침략세력사이의 치열한 군사적대결이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저들의 세계제야양심선의 운명을 걸다싶이 하고 자기 나라 특공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중공국가군대와 남조선피괴역도 등 도합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전쟁수단들을 들이밀었다.

미제는 저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폭격과 바다, 공중 등 사면팔방으로 파도식공격을 들이대면서 우리 나라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발랑하였다. 사실 지난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후 처음으로

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한 부정의 전쟁으로서 거기에 동원된 병력과 무장장비에 있어서나 치열성에 있어서나 상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조선침략전쟁에 동원된 제국주의침략무력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침략에 들이밀었던 병력에 비하면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에 이처럼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었다는 미제의 괴물은 침략력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제가 페르시아만전쟁 시기 30여만 국가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였지만 그 수는 지난 조선전쟁에 동원되었던 침략무력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던 것이다.

미제가 이처럼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한것은 단순히 공화국북반부를 노린것이 아니었다.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계속하여 사회주의력량을 포위압살하며 세계정세를 교란하려는것이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의 목적이었다. 미제가 북침공격을 개시하면서 이침은 해주에서, 정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것이라고 제쳐놓은 이러한 야망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미제는 조선전선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수적우세를 시도하여나섰다.

지난 조선전쟁은 인류전쟁사에서도 기록 파국적인 전쟁이었다. 미제는 저들이 가지고있는 최첨단기기와 전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것을 무장침공으로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으며 도처에서 인민의 두뇌를 파괴하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비인간적인 야수적대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조선전쟁을 치르렀다.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하고 모조리 파괴

열렬한 애국심, 강한 자주정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었다. 우리 인민은 3년만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세계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반도에는 아직도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있다. 미제는 전후 수십년동안 남조선에 가르고있었다. 이것을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제일선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 새로운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피는 것이 되어 날뛰고있다. 미제의 새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제일선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 새로운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피는 것이 되어 날뛰고있다. 미제의 새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제일선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 새로운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피는 것이 되어 날뛰고있다.

미제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조선전쟁 《천안》호칭을 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우리 반대를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하고있다. 미국은 《천안》호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재개노력을 중단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한데 이어 남조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협력》을 떠들며대면서 우리를 엄중히 위협하여나서고있다. 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천안》호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대조선정치군사경제체조치를 취하게끔 하여나서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정기시험을 제2조선전쟁에 이리려고 맹렬한 막후조종을 벌이고 수명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필승불패의 의의 발현이요이며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조선반도정세가 흔들리면 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이 흔들리게 되고 이곳에서 파국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자연히 아시아와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번져지게 되어있다. 미제는 핵실험공격을 조선전쟁의 기본방식으로 정해놓고 핵타격무력을 남조선과 일본 등에 집중배치해놓았다. 반공화국모략구인 《천안》호 사건을 날조한 미제는 호시탐탐 북침전쟁의 포성을 울릴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사태는 극도로 심각하다. 침략자들에게는 단호하고 무자비해야 한다는것이 지난 조선전쟁이 남긴 피의 교훈이고 우리 인민이 갖은 력사의 진리이다.

반세기이상이나 남조선을 가로라고있어 제 할짓을 다하고도 성취하지 않아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조선반도를 집어삼키려고 지랄발광하는 미제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침략자들과는 최후의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하고 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세계적침략전쟁을 통해 오만한 질대로 오만한진 미제는 조선반도에 또 한차례의 전쟁의 불길성을 저어올리는것으로써 저들의 대아시아, 세계적침략전쟁의 돌파구를 열어놓으려고 시도하고있다. 일본반역자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미호와 남조선피괴역도당의 새 전쟁도발행동을 저지파란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영국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제5차대회에서 6월 12일 런던에서 진행된 영국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제5차대회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영국공산당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건설 특히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편이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모든 난관에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반적무장치로, 무료의무교육제와 같은 인민의 사회적사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온갖 수단으로 동원하여 공화국을 압살하고 조선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기를 위하여 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적대시행속에서 이룩된것이다.

조선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뿐만아니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위를 위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반도의 남북통일을 강경한 미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속에

조선의 벗들을 더 많이 정취하기 위한 현대생활을 벌였기이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에 핵무기까지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또한 남조선에 핵무기까지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또한 남조선에 핵무기까지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또한 남조선에 핵무기까지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또한 남조선에 핵무기까지 끌어들이었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자연보호구 건설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최근 5년동안 18개의 국가급 및 자치구급자연보호구를 새로 건설하였다.

치구에는 국가중점보호대상 야생동물이 125종, 고등식물은 640여종이 있다.

위생방역조치 앙골라정부가 6월 26일 나라에서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항의시위와 파업 뉴질랜드 노스섬의 플렌티만에서 6월 27일 당국의 그릇된 계획을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을 단죄 유엔구체사업기판 책임자가 6월 27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의 가지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리스에서 반이스라엘시위 그리스에서 반이스라엘시위

## 백문규

수출증대 이란에서 올해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2개월동안에 스펀로 잔 주산 수출액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27% 늘어났다.

소련로동근절계획 브라질에서 2013년경까지 소련로동근절계획을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다

다단계성원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크론피해 확대 중국의 부건, 사천, 광둥, 강서성과 광시강족자치구 등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크론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미국의 비난을 배격 이란군방무력병참상이 얼마전 통신기의 회견에서 최근 미국방정부가 이란의 미사일들이 유럽에 있어서 위협으로 된다

미국의 회사시설을 국유화 이번 조치는 나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라고 한다.

죄지는 자의 피해 망상 증 지난해 4월 정세불평의 소행비행기가 수도 워싱턴상공의 비행금지구역안에 날아오른 데 낮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악관과 국회의장이서 부속통이 일어났다.

미국의 회사시설을 국유화 이번 조치는 나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라고 한다.

죄지는 자의 피해 망상 증 지난해 4월 정세불평의 소행비행기가 수도 워싱턴상공의 비행금지구역안에 날아오른 데 낮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악관과 국회의장이서 부속통이 일어났다.

미국의 회사시설을 국유화 이번 조치는 나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라고 한다.

죄지는 자의 피해 망상 증 지난해 4월 정세불평의 소행비행기가 수도 워싱턴상공의 비행금지구역안에 날아오른 데 낮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악관과 국회의장이서 부속통이 일어났다.

미국의 회사시설을 국유화 이번 조치는 나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라고 한다.

죄지는 자의 피해 망상 증 지난해 4월 정세불평의 소행비행기가 수도 워싱턴상공의 비행금지구역안에 날아오른 데 낮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악관과 국회의장이서 부속통이 일어났다.

미국의 회사시설을 국유화 이번 조치는 나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라고 한다.

## 세계상식

### 청화대학명칭의 유래

중국 청화대학의 명칭은 청나라 황실의 원림이었던 《청화원》에서 유래되었다. 《청화원》은 강희황제시기에 건설된 《회춘원》의 한부 분이다.

### 세계박람회 기원

18세기에 들어와 사람들은 새 기술과 제품이 끊임없이 출현함에 따라 전시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판매보다 제품을 및 성과를 전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람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미군의 살인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 미국의 비난을 배격

이란군방무력병참상이 얼마전 통신기의 회견에서 최근 미국방정부가 이란의 미사일들이 유럽에 있어서 위협으로 된다

### 미국의 회사시설을 국유화

이번 조치는 나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라고 한다.

### 죄지는 자의 피해 망상 증

지난해 4월 정세불평의 소행비행기가 수도 워싱턴상공의 비행금지구역안에 날아오른 데 낮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악관과 국회의장이서 부속통이 일어났다.

### 미국의 회사시설을 국유화

이번 조치는 나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라고 한다.

### 죄지는 자의 피해 망상 증

지난해 4월 정세불평의 소행비행기가 수도 워싱턴상공의 비행금지구역안에 날아오른 데 낮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악관과 국회의장이서 부속통이 일어났다.